

이화 거울

이화여고 필라델피아 동창회 March 2013, Philadelphia, Pennsylvania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 www.ewhagirls.net

우리 모두 만나요!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모두 *Philadelphia* 로 초청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큰일을 앞에두고, 이곳 회장과 임원들은 마음이 바쁘답니다. 회장부터 모든 임원들이 1인 3-4억 썩을 맡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지낼 2박3일을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수있을까... 연구하며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따뜻하고, 둥근 마음들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한자리에 둥글게 모여 즐거운 시간으로 엮어 봅시다. 필라델피아에서 동창들의 기다리는 마음을 띄웁니다.

SEE YOU IN PHILLY!



❖ 문화, 역사, 교육의 유적지, 필라델피아에서 2013 만나요!



이 화 교정을 떠나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자유, 사랑, 평화의 전당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치던 10대의 소녀들이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 한가정의 어머니로써, 교사로써, 의사로써, 또 사회적 리더로써 각자 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월 7일과 8일에 필라델피아에

서 큰 잔치인 이화 동문음악회와 총회 그리고 동문미술 전시회가 개최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느 큰도시와 달리 모이는 동문 숫자도 적고 이화동창회가 맡기 된지 13년도 채 되지 않지만 이화를 사랑하는 뜻 있는 임원들이 성과 열을 다해 잔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꽃향기 뿜으며 그리운 옛 친구들과 회포를 푸시고 역사 유적지방문, 미술전공한 동문들의 그림전시회, 자랑스럽고 훌륭한 선배님들의 강연 등 많은 재미있는 순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사오

니 부디 참석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갖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63 북미주 제5차 총동창회장)



❖ 이화사랑 동창님들께 교장 강순자 ('62)



안녕하십니까? 북미주 동창 여러분들!

여러 동창님들의 한결같은 이화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모교 이화는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6일에는 약 42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이화가 다시 태어나면서 처음 졸업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번 학생들은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이므로 대학진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가졌던 학생들입니다. 금년 졸업생 중 많은 학생들이 서울시내 대학에 합격하여 점차 이화의 저력을 나타내고 이화가 명문학교임을 또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이화 동창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여러 동창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신입생 모집에서는 4.5:1

이라는 서울시내 26개 자사고 학생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화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학부모의 인기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8월에 남가주 동창회에서 LA에서 'Ewha Concert' 를 개최하여 1억이라는 거금의 장학금 및 기숙사 건축기금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 동창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감사해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모아 주시는 여러 동창님들의 노력으로 장학기금을 현재 75억이 되어가며 최근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33억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모교를 사랑하며 후배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내외 여러 동창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유관순기념관 앞에는 일 년간의 기숙사건축 대공사 끝에 5월초에 1학년학생 430여명 전원이 기숙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정원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화노천극장 등 이화campus와 한층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화의 꿈을 펼쳐 나

아갈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이화꿈나무들의 귀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2월26일,27일 양일간 2013년 신입생을 위한 새내기행사가 교내 화암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개최되며, 특히 학생과 학생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화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자부심 넘치는 표정들입니다.

이화는 여러 동창님들께서 두고두고 자랑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이화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여러 동창님들의 모교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초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북미주동창회를 준비하시는 회장님과 여러 동창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님들의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 2월



❖ 북미주 이화 총동창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혜성 ('58 전 이화여고 총동창회장, 현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2013년 9월에 Philadelphia에서 북미주 이화 총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몹시 흥분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이화여고 총동창회장으로 일하면서 진정으로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을 몇 가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6년 예술의 전당에서 창립 11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을 때 미국 각지역의 동창들이 많이 참석해서 너무나 즐거웠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유관순기념관 의자 교체 기금 3억원을 모금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있었으므로 3억원은 참 큰 금액이었지만 동창들의 모교 사랑의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1997년에는 이화를 빛낸 동창들의 모임으로 새빛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새빛회는 해마다 수상자들이 회원이 되어서 지금은 전문직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의 좋은 결집체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에는 자유 사랑 평화의 새천년 큰 물결 음악회를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이화 출신 음악가들의 연주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1회 동창의 날 기념 송년예배 및 기념 합창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후로 매 격년으로 동창회의 큰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저는 동

창회 임원들 뿐만 아니라 이화 졸업생들 모두가 진정으로 학교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감했고, 이화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과 재학생들의 협조도 컸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화는 진정으로 좋은 학교"이며 "이화는 우리들 졸업생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임을 깊이 느끼면서 이화에서 받은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감격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사랑·평화의 교훈아래서 자라난 우리 동창들은 모두 모교를 자랑스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는 정신을 체질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 동창들은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세련되고, 우아하고, 품격있는 너무나 멋진 유쾌한 여성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화여고 총동창회장"으로 일했다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저의 가족과 이화의 너무나 특별한 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인수(李仁錫) 선생님께서는 23년간 이화의 국어교사로 계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정성으로 하루 하루를 이화 사랑으로 보내셨습니다. 셋별 클럽을 창설하셔서 반기 보다는 주는 생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활 태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성이 깨어야 민족이 산다는 철학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여성의 진취적인 정신을 이화 학생들 모두에

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딸만을 여섯 두셨는데 저의 형제들은 모두 이화를 졸업했고, 이러한 이화의 선생님이 저희들의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첫째 딸 이해원 동창(55년 졸업)은 지금 Philadelphia 이화동창회 고문이고 제가 둘째인데 58년 졸업, 셋째 혜순(64년 졸업), 넷째 혜경(66년 졸업), 다섯째 혜란(69년 졸업), 여섯째 한길(75년 졸업).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이화의 역사를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고 65년부터 68년까지 이화여중 국어교사를 했는데 그 3년간이 제 일생의 커리어인 교사(수) 생활에서의 황금기였습니다. 이화여고 학생이었을 때와는 또 다르게 이화여중의 교사로서 이화정신을 몸에 익히는 시기였습니다. 이화에 다니고 있는 총명한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쁨을 만끽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4년에 귀국해서 대학 교수로 2005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제가 되기 까지에 이화에서 받은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화에 대해 감사하고 이화의 졸업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화의 명예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초에 Philadelphia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송 보경 ('63 이화여고 총동창회장)



제 5회 북미주 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화사랑은 자유·사랑·평화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니다.

제4회 클리블랜드 북미주 총회에서 이화인들의 넘치는 활기와 LA에서의 후배 사랑 조수미 초청 음악회의 감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제5회 북미주 총회는 활기와 감격을 넘어 사랑의 열기로 뜨겁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서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인 후배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자긍심인 이화장학재단은 클리블랜드 총회 때 45억 기금이었던 것이 현재 73억으로 10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머물며 공부할 수 있는 이화 기숙사는 거의 완성 단계이며 제5회 필라델피아 북미주 총회에서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화여고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의 전환은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교육부에서 평가 받고 있습니다. 9월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는 이자형('66) 수석 부회장, 김경숙('69) 부회장, 유혜영('74) 부회장, 정점순('78) 총무, 박은주('77) 회계와 함께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합니다.

"그래 생각나지, 생각나 빨갛고 흰 장미들..."

T.후드의 "과거와 현재" 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동창이 만나면 좋은 것은 이 시구처럼

생각나지 생각나 이룩한 우리들의 업적과 이룩할 우리들의 꿈일 것입니다.

김혜경 회장님과 준비위원 그리고 빛나는 동창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뵙겠습니다.

2013년 2월 12일



❖ 이화를 사랑하는 북미주 동창님들께 이 병주 ('64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오늘의 자랑스런 이화, 보석같이 빛나는 이화는 하나님을 섬김에서 비롯됐다.

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이신 스크랜튼여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이 그리웠고 그 섬김은 암울했던 시기에 무지와 빈곤에 처해 있던 한국의 막디 맑은 어린 소녀들에게 심어져, 오늘에 이르러 큰 위력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라고 어느 깨달으신 분이 말씀 하셨다. 이화인들은 우리들이 받았던 이 소중한 은혜를 인류는 한가족인 이 지구촌에서 스크랜

튼 여사가 했듯이, 나누고 또 나누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 빛나는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소중한 정신을 갖춘 이들이 모이면 그 위력이 더해지기에, 우리는 이 미국땅에서 북미주 총동창회를 설립하고 금년 9월에 5차 총회를 필라델피아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총 동창회를 준비 하는 필라델피아 임원진들은 정성을 다해서 여러 동창님들을 모시고 스크랜튼 여사의 빛나는 정신이 대대로 이어 지도록 뜻 깊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고 자랑스러운 이화 동문님들, 미국이 독립 선언을 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필라델피아, 서재필박사와 이승만박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시가 행진을 했던 이 곳에서 은혜를 나누는 이화인 들이 되시고, 또 따뜻한 정을 나누시어 즐거운 한때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 하게 되시기를 염원 합니다.

이화 모교와 동창 분들께서 한국과 지구촌의 밑알이 되어 오늘에 이른 것에 무한한 감사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국민 학교 때 이화 음악 콩쿨에 합창 단원으로 여러 차례 참가했기 때문에 이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학교인지, 가고 싶은 학교 인지를 알아 '막내인 저는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꼭이 이화의 자유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택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 합니다.



❖ 가을에 피게 될 이화 이 영옥 ('63 필라델피아 이화거울 편집인)



이어나보니 흰 눈이 소복히 쌓여있습니다. 창문 안에서 내다보는 밖은 얼마나 환하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갑자기 하얀 눈이 까맣게 보입니다. 오늘은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코바 식당에서 임원회를 한다니 이길을 운전하고 가야합니다. 가까이 사는 후배에게 코바가 어느나라 음식인지 물었더니 코리안 바베큐를 줄인말입니다. 요새 모를 말이 코바뿐인가요?

혹, 하사공을 아시나요? 꼭 낚시터에서나 들을 이름 같지 않나요? 얼마 전에 한국 식품점에서 듣고 배운 말입니다. 몇가지 사들고 나오는데 계산대에서 아가씨가 “할머니~~!” 하고 부르기에 내 뒤에 어떤 할머니가 계신가보다 하며

서있는데 계속 나를 쳐다보는 아가씨의 눈길을 따라 내 뒤를 보았는데 할머니 안계시고 청년 두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서있기에, “아마 지나가는 아는 할머니를 불렀나보군~” 하고 그냥 서있었지요. 이번엔 분명히 나를 쳐다보며 또 부르기에, “나를 불렀나요?” 하고 물었더니 계산대에 올려졌던 동태 전감 한 봉지를 들고서 “할머니, 이거 하사공이니까 얼릉 하나 더 갖고 오세요!” 하는데 이사람이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네~ 하며 껄썩했지만, 우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부끄러움을 참으며, “아~아~ 그게 하사공 이라는거예요? 난 동태 전감으로 알고 샀는데 언제부터 이름이 바뀌었나보네요..” 하며 제법 알아들은 척을 했지요. “아유~ 할머니~~! 하나 사면 하나 공짜란 말이 하사공 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걸루 하나 더 갖고 오시라구요…” 하며 길게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씩씩했던 마음도, 하사공을 못알아듣고 무안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공짜”란 소리만 외위라며 얼른 뛰어가서 한 봉다리를 더 가져왔답니다.” 요샌 왜 이렇게 시간도 쪼개고, 말도 줄이고, 잘라서 모를 말들이 자꾸만 생기나~?”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요즘 말을 못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나 뿐이겠나?

이런 우리들이 매 주 모여 9월에 있을 큰일을 준비하느라고 몸도 맘도 고단합니다. 선배님들이 아우들을 챙기시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왕 할려면 성의껏 잘해야한다고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들을 격려하시며 시간과 지혜를 나누어 도와 주십니다. 미국 각 지역에 계신 우리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즐겁고 기쁘게 모일 수 있는 5차 총회가 되도록 도와 주세요.

이 흰눈을 헤치고 나와 싹을 돋우고, 꽃을 피워 향기를 날릴 배꽃들처럼, 우리들도 봄, 여름을 착실한 준비로 잘 지낸 후 가을의 첫달인 9월에, 우리 이화의 자유, 평화, 사랑의 향기가 필라델피아의 상징인 “자유의 종”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퍼져서 아름답게 이 지역을 덮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9월 첫 주말에 이곳에서 모두를 만나 뵙기를 기다리며..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제5회 총회를 축하합니다.



춘원 연구학회

❖ 미술 전시회

이번 총동창회의 기간중 Doubletree Hotel에서 미술 전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미술을 전공하시고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동문들께서는 이번에 Curator로 수고하시는 서 효숙('75) 동문께 문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품 판매 금액의 일부는 동창회에 후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whagirls.net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소가 한정된 관계로 일찍 마감할 경우 마감일 전에 선착순으로 결정 할 예정이니 참가하실 분들은 email이나 편지 혹은 전화로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 효숙('75) Piety Choi
전화: 215-669-4208 / 이메일: piety.choi@gmail.com / 집주소: 34 Hawk Valley Lane, Denver, PA 17517

❖ 5차 총 동창회 Schedule

■ 9월 6일(금요일)

6 pm - 10 pm Registration / 환영, 합창단 연습

■ 9월 7일(토요일)

7 am - 8:45 am Breakfast

9 am - 10:30 am Lectures (이혜성총장, 이정화박사)

11 am - 4 pm City Tour (Independence Hall, Liberty Bell, Barnes Foundation, Betsy Ross House)

5 pm - 7 pm Buffet Dinner

8 pm - 10 pm 자유 평화 사랑 음악회

10:30 pm ~ Slumber Party

■ 9월 8일(일요일)

7 am - 8:45 am Breakfast

9 am - 10:30 am 예배와 총회

11 am - 5 pm 서재필 기념관, Longwood Garden

5:30 pm Reception

6:30 pm ~ 총회 만찬

■ 9월 9일(월요일):

7 am - 8:45 am Breakfast

9 am - 10 am 총회 종료/ Wrap up session

EWHA TOUR

■ 9월9일: 워싱턴 DC 문화 탐방

■ 9월10일: Luray caverns, Gettysburg National Park

■ 9월11일: Amish Village, Hershey Chocolate Factory
필라델피아 도착 후 석식

■ LURAY CAVERNS

버지니아주(州) 북서부에 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면적 0.4 km²의 석회암 지하동굴이다. 100만 년 전에 지하 석회암층을 지나는 지하수가 석회암 성분을 녹이면서 동굴이 생겼다. 미 동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석회암층 동굴이며 전세계에서 7번째로 큰 동굴이라고 한다. 주변 관광지로는 쉐난도우 국립공원이 있으며 John Denver 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라는 노래의 배경이 된 지역이기도 하다.

■ HERSHEY CHOCOLATE FACTORY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 회사인 Hershey Chocolate Company가 당사 직원의 여가를 위해 세웠던 것이 Hershey Chocolate Park 이다. 처음에는 소풍, 낚시, 카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었다. 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곳에서 허쉬 코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라이드 열차와 3D 영상을 관람한다. 근처에 역시 허쉬 초콜릿 사가 설립한 동물원 주아메리카(ZOOAMERICA)와 테마 방문자 센터인 허쉬 초콜릿 월드(Hershey's Chocolate World)가 있다.

■ GETTYSBURG NATIONAL PARK

남북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지역이며, 링컨 대통령의 명연설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현재 이곳은 전쟁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링컨 대통령의 묘지 또한 이곳에 안착되어 있다.

■ AMISH VILLAGE

펜실베이니아 주 랭캐스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아쉬미 마을은 기독교의 일파로서 문명사회에서 벗어나 현재까지도 엄격한 규율속에서 18세기 말 경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근대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복에도 단추도 없는 간소한 복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17세기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신 대륙을 찾아 온 것이 그 기원이며 펜실베이니아 랭캐스터 지역을 시작으로 미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 2012 Scholarship 기부자 / 총회 후원자 12/31/2012 현재

Scholarship 기부자

62 강은영 NY	\$500
62 강춘환 NJ	\$2,000
62 김경자 FL	\$2,000
62 김명세 NJ	\$500
62 김명희 LA	\$500
62 김문자 IA	\$1,000
62 김선자 NY	\$5,000
62 김성혜 PA	\$88
62 김성혜 WI	\$300
62 김수자 CO	\$1,000
62 김숙자 CA	\$200
62 김영민 NJ	\$500
62 김영수 NY	\$500
62 김영자 PA	\$300
62 김옥자 IL	\$300
62 김정숙 IL	\$300
62 김정자 LA	\$10,000
62 김정자 IL	\$500

62 김현신 PA	\$200
62 김형미 MO	\$500
62 마주해 IL	\$500
62 문희영 TN	\$500
62 박기원 NJ	\$500
62 박문순 NY	\$1,000
62 박미순 MI	\$1,000
62 박성자 IL	\$500
62 박영자 PA	\$1,000
62 박은정 IL	\$300
62 박혜주 WA	\$300
62 신영자 MI	\$465
62 유정자 NY	\$500
62 이경숙 IL	\$2,000
62 이금주 MD	\$5,000
62 이민자 NJ	\$1,000
62 이성자 CA	\$400
62 이신자 TN	\$500
62 이양자 FL	\$1,000
62 임길자 VA	\$2,000

62 임정자 IL	\$300
62 장경자 NY	\$300
62 장명희 VA	\$100
62 장윤자 PA	\$500
62 전명자 NY	\$1,000
62 정명자 NJ	\$500
62 정연자 NJ	\$500
62 정영란 NJ	\$500
62 정은자 IN	\$3,000
62 조금자 IL	\$300
62 조정숙 TX	\$200
62 주일신 IL	\$300
62 최경숙 NJ	\$5,000
62 최숙자 MI	\$500
62 한성자 NJ	\$200
62 한옥자 IL	\$300
62 현정순 IL	\$500
62 황상자 MD	\$200
57 이정자 CA	\$200
57 김정자 MD	\$200

66 박임자 PA	\$2,500
58 유문희/ 38 박은수 CT	\$5,000
56 김정희 IL	\$10,000
54 김정희 MI	\$36
55 김상현 MI	\$36
62 조혼자 MI	\$50
63 하화자 MI	\$63
64 김종엽 MI	\$36
65 이혜경 MI	\$565
66 차승순 MI	\$25
67 박은자 MI	\$45
67 박혜현 MI	\$57
69 이운자 MI	\$22
김경애 장학금	\$20,030

장학금 송금 \$67,788.00

총회 후원자

59 김주은 PA	\$500
63 김혜경 PA	\$10,000
57 백혜담 PA	\$1,000
72 송운숙 PA	\$1,000
64 이병주 PA	\$1,600
63 이영옥 PA	\$3,000
72 이정선 PA	\$1,000
52 이정화 PA	\$2,330
55 이혜원 PA	\$3,000
54 장영완 PA	\$1,000
66 박임자 PA	\$2,500
72 홍명옥 PA	\$80
64 배영자 OH	\$100



❖ 참가 신청서

한글 이름	졸업연도		
영문 이름	동창회 지회명		
주소:	Street	City	State Zip Code
전화번호: Home	Cell		
Guest Name:			
비상연락: 이름	전화번호		
A. 총회 참가 회비 내역 및 비용			
■ 참가회비 (만찬 이외 모든 식사비 & 교통비 포함)	\$150 per person	\$	
■ Banquet 만찬비 (9/8/2013):	\$100 per person	\$	
■ 북미주 동창회비 (2012 & 2013):	\$30/year x 2	\$	
■ 후원이사회비:(\$100 이상)		\$	
■ 특별 찬조금: *모든 찬조금은 세금 공제 받습니다 (Tax Deductible)		\$	
■ 총회는 참가 못하나 동창회 연회비, 찬조금 을 보냅니다.		\$	
	A: Subtotal:	\$	
B. 시내 관광:			
	\$140 (2 days) per person	\$	
Independence Hall, Liberty Bell, Barnes Foundation, Betsy Ross House, 서재필기념관, Longwood Garden	B: Subtotal:	\$	
	TOTAL (A + B)	\$	
C. 여행 참가: Ewha Tour (9/9/13 ~ 9/11/13)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신청서와 여행비 Check 보내실 곳: Ewha Educational Foundation, Inc. P.O.BOX 104, Newtown Square, PA 19073 215-947-1248 / 610-462-4388 / fax 610-353-4533 ewhana@ewhagirls.net			

❖ Hotel information

- 호텔:
Double Tree by Hilton Hotel at Philadelphia Center City
237 South Broad Street, Philadelphia, PA19107
Tel: 1-215-893-1600, 1-800-222-8733
www.doubletree3.hilton.com
- GROUP CODE: EWH
GROUP NAME: Ewha Girls HS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 GROUP RATE:
4월 30일까지 예약하셔야 Group Rate이 적용됩니다.
2명 1실:\$159 + tax / night / Room
4명 1실:\$169 + tax / night / Room
- TRANSPORTATION
from airport to Double Tree by Hilton Hotel in Center City
1) Lady Liberty Shuttle(215-724-8888):
Airport to Hotel (\$10.00)
2) Ground Transportation: Taxi (\$28.50)

- 총회 후 여행 (Optional)
여행사: 동부관광 Dongbu Tour & Travel Inc.
여행참가비: \$400 (9/9~9/11)
all meals, transportation & activities all included
신청마감 : 6월 15일
여행비는 check payable to: Dongbu Tour & Travel Inc.



P.O. Box 104 | Newtown Square, PA 19073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Ewha Educational Foundation, Inc.



북미주 이화여고 제5차 총회 및 자유, 사랑, 평화 음악회
일 시 : 2013년 9월 7일(토요일) - 8일 (일요일)
장 소 : Double Tree Hotel in downtown Philadelphia

